



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

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·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,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.

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 징수하나,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·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합니다.

2024.4.4.(목) 경향신문

“지자체 살림 어찌라고... 부담금 줄인 정부 탓에 돈 가뭄”

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